

“종합교양물 출판 지향하며 거듭난다”

창립 7년만에 서울시문화상 받은 대원사

출판사 대원사가 일반독자와 출판동네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것은 두 가지의 뚜렷한 이미지로 서다. 하나는 고급 컬러문고본 '빛깔있는 책들'을 내는 출판사이고, 다른 하나는 '불교서적'을 주로 내는 출판사라는 점. 올해로 7년째를 맞은, 그래서 이제 중견출판사의 대열에 진입할 수 있는 년차에 접어든 대원사는 지금까지 그들의 '다른 이름'으로 불렸던 그 두 이미지에서 벗어나고 싶어한다. '빛깔있는 책들'을 내는 출판사가 아니라 종합교양물을 내는 출판사, 그리고 특정 종교의 냄새를 없애는 일.

“우리의 책 가운데는 기독교 관련서를 비롯해 신비주의자, 카톨릭 성직자의 책까지 다양합니다. 그런데도 많은 독자들이 불교출판을 떠올리는 것은 성철 스님 법어집으로 유명한 '장경각'의 책을 대행판매 한다가나, 한때 모회사였던 '대원정사'의 책과, 우리가 출판을 하지는 않지만 이리저리하게 연관을 맺고 있는 '대한불교진흥회'에서 만든 책도 모두 하나의 목록에 등재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는 출판에 있어 아무 관련도 없고 편의상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일 뿐이거든요.”

조용균 영업부장은 이제 중견 출판사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마당에 하나의 특정 이미지로만 굳혀지는 것은 그리 바람직하지 않다고 대원사의 '현재'를 '정확히' 써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물론 그것은 왜곡을 밝히는 일처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화급한 일도 아니고, 어느 정도는 대원사가 그렇게 이미지지워 지도록 초기의 환경이 또한 실제 그랬기 때문에

꼭 밝히고 넘어가야 할 중요사안도 아니지만 대원사 사람들이 그러기를 '고집'하는 것은 이제는 오로지 책으로만 진정한 출판인·출판사로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인 듯하다. 그만큼 자신감을 가졌다는 얘기도.

대원사의 출발은 여느 출판사와 다소 틀리다. 많은 출판사가 책을 만들어 보겠다는, 책 만드는 일이 좋고 그 일을 하면서 돈도 벌겠다는 생각에서 출판사를 차렸다면 대원사는 나라에 보탬이 될 만한 문화사업이 없나를 고민하던 끝에 출판을 선택했다는 경위의 다른 점이 그것이다. 대원사를 상징하는 출판물 '빛깔있는 책들'은 그러한 시작 당시의 생각을 잘 반영하는 시리즈물로 선택된 것이다. 그런 까닭에 “저렇게 해서 돈이되나” “뜻은 좋는데 곧 망할 것이야”하던 주변의 우려와는 달리 매년 적잖은 적자를 보면서도 간행해올 수 있었던 것이고, 그것은 이미 작성한 일기도 했기에 눈앞의 '누수'에도 별 필요가 없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이렇듯 적자에 태연하고 처음의 출판목적을 지켜나갈 수 있었던 것은 설립자 故장상문 회장의 35억이란 돈의 '투척'이 든든한 바탕이 된다. 장 회장은 국내 유수의 철강업체인 동국제강 설립자의 차남으로 스웨덴, 멕시코, 유엔주재사를 역임한 직업외교관이다. 그는 오랫동안의 외국생활에서 우리나라를 알릴 문화상품이 없다는 것을 늘 부끄럽게 느꼈다고 한다. 자국 내에서는 5000년 역사다, 유구한 전통이 다들 외치지만 그것은 우물 속의 메아리일 뿐 국경을 한발자국만 벗어나 보면 그런 사실을 아는 외국인들은 전혀 없었다는 것. 반면



대원사 편집실. 서대문구 청천동 정원이 아름다운 주택에 위치해 있다.

선진국들은 물론 일본이나 그외 작은 나라들도 자국의 전통과 문화를 홍보하는 일에 매우 적극적인 것을 보고 절감 끝에 착안한 것이 '책'이라는 것이었다. 81년 공직에서 물러난 그는 다른 형제들과는 달리 선친이 물려준 문화관계 유업을 맡으면서 우리네 전통문화를 정리하고 소개하는 책을 간행하겠다는 꿈을 구체화시키나간다. 가계의 종교가 불교이기도 하여 관련을 맺고 있던 불교서적 출판사 '대원정사' 안에 지난 86년 '전통문화' 파트를 설치하면서 책의 주제와 필자 선정작업에 착수했고, 88년에는 기왕의 출판사 이미지와의 혼동을 우려해 그것만을 독자적으로 출판할 '대원사'를 별도로 설립한다. 주위의 격려와 우려속에 지금까지 157종을 선보였고 앞으로 500권까지 출판할 계획까지 세워두고 있는 '빛깔있는 책들'의 존재는 그렇게 시작된 것이

다.(본지 82호 참조)

대원사의 인원은 모두 16명. 기획, 편집, 미술, 사식 등 편집부의 구성원이 7명, 그리고 상무, 이사, 영업파트로 구성돼 있다. 여느 출판사와 달리 대체로 외주에 맡기는 사식업무가 출판사 내에 사람을 두고 소화하고 있는 것이 이채롭다.

지난 여름 서점가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명찰순례'와 같이 단행본 파트에서도 주목할 책이 많은데, 종합교양물 출판을 지향하는 대원사가 앞으로 역점을 둘 분야는 바로 이곳이다. 그리고 잠시 주춤했던 '창작동화시리즈'도 8개월여만에 다시 재개했으며, 그간의 공로를 인정받아 출판물로는 드물게 책으로 지난 10월7일 '서울시문화대상'을 받는 큰 영예를 얻기도 했다.

— 정혜옥 기자

사 업 개 명

언제나 의욕적이며
진취적인 기상이라서
새로운 도전을 원하십니까?

한번 만나기를 원합니다.

당사는 신규개업하는 중형서점으로서
책임을 맡아 일할분을
한분만 파격적인 대우로 모십니다.

- 응시자격 : 서점업무 경력 3년 이상의 여성
- 제출서류 : 자필이력서 (사진부착·연락처 기재요)
자기소개서 (실무경력 중심으로 기술)
- 전형방법 : 서류심사후 면접
- 제출기한 : 1994년 11월 20일까지
- 제출처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본동 196번지
올림픽아빌딩 709호
- 문의전화 : (02) 567-5067

문 예 서 림 (가 칭)